IT분야 예비창업자의 성격5요인이 개인혁신성, 자기효능감, 창업의지에 미치는 영향*

The Effects of Potential IT Entrepreneurs' 5 Personality Factors on
Personal Innovation, Self-Efficiency and Entrepreneurial Intentions

신하성 (Sin, Ha - Sung)**

〈요 약〉

IT분야의 중요성과 달리 IT분야 예비 창업자들에 대한 선행적인 연구는 거의 전무한 상태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학문적 관점에서 성격5요인을 활용하여 IT예비창업자들의 성격요인을 분리할 것이며 나아가 IT분야 예비 창업자의 성격요인이 자기효능감, 개인혁신성, 창업의지에 미치는 영향력을 파악하는데 연구의 목적을 두었다. 분석의 결과를 살펴보면 신경증은 개인혁신성과 자기효능감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부적(-) 영향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외향성은 자기효능감에 유의미한 정적(+) 영향력을 주었다. 또한 개방성은 개인혁신성에, 성실성은 개인혁신성에 친화성은 자기효능감에 유의미한 정적(+) 영향력을 미쳤으며 개인혁신성과 자기효능감은 창업의도에 정적(+) 영향력을 미쳤다. 본 분석의 결과 신경증이 개인혁신성에 가장 큰 영향력을 주는 것을 알 수가 있었으며 다음으로는 개방성으로 파악되었다. 또한 자기효능감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신경증으로 나타났으며 다음으로는 외향성으로 파악되었다. 개인혁신성과 자기효능감이 창업의도에 미치는 영향에서는 자기효능감이 개인혁신성보다 더 큰 영향력을 창업의도에 미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다.

이러한 연구의 결과는 향후 IT분야 예비창업자들의 성격을 토대로 한 맞춤형 교육을 시행하는데 유용한 자료로 활용이 될 수 있을 것이다.

한글검색어 : 성격5요인, 개인혁신성, 자기효능감, 창업의지

• 접수일자 : 2018.3.12 • 1차수정일 : 2018.4.26 • 2차수정일 : 2018.6.20 • 게재확정일 : 2018.6.27

* 본 논문은 박사학위 청구 논문을 요약 발표한 내용임

** 경일대학교 금융증권학과 박사과정, e-mail : bbang7600@hanmail.net

I. 서 론

전 세계적으로 스마트폰을 비롯한 IT기기의 사용이 일상생활이 되어지면서 IT기기들을 활용한 창업이 성행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을 반증하듯이 코딩을 배우려고 희망하는 사람들이 급속히 늘고 있으며 교육기관 역시 늘어가고 있는 추세이다. 또한, 극심한 경기 침체속에 많은 남녀 구직자들이 취직을 포기하고 창업을 고려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중 가장 선호하는 분야중 하나가 바로 창업분야로 IT/인터넷 분야이다. 다가오는 4차 산업혁명의 시대를 맞이하여 고부가적인 IT산업이야 말로 지속적인 관심을 가져야 할 분야로 생각되어지는데 창업진흥원에 따르면 창업으로 인한 일자리의 증가가 연평균 130만개로 나타나 일자리 창출에 큰 기여를 한 것을 알수가 있다. 이러한 현실을 바탕으로 정부에서는 창업이 국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력을 확대하기 위하여 여러 가지 재정적, 행정적, 교육적인 지원을 진행하고 있다. 특히 IT분야 창업자의 경우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필요한 직종으로 타 직종의 창업자 보다 세밀한 체계적인 교육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IT분야의 중요성과 달리 IT분야 예비 창업자들에 대한 선행적인 연구는 거의 전무한 상태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학문적 관점에서 성격5요인을 활용하여 IT예비창업자들의 성격요인을 분리할 것이며 나아가 IT분야 예비 창업자의 성격요인이 자기효능감, 개인혁신성, 창업의지에 미치는 영향력을 파악하는데 연구의 목적을 두었다. 이러한 연구의 결과는 향후 IT분야 예비창업자들의 성격을 토대로 한 맞춤형 교육을 시행하는데 유용한 자료로 활용이 되어질 수 있을 것이다. 본 논문은 다음과 같이 구성되어져 있다. 제 I 장 서론에서는 연구배경 및 목적을 언급하면서 이러한 연구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연구방법을 설명하였다. 제 II 장은 성격5요인, 개인혁신성, 자기효능감, 창업의지를 본 연구의 이론 배경으로 정립하고자 한다. 제 III 장에서는 제 II 장에서의 문헌적 고찰을 통해 마련된 이론적 근거를 통해 연구모형을 설정하고, 각 변수간의 관계를 설명 할 연구가설 및 변수의 조작적 정의, 연구조사 방법 등을 서술한다. 제 IV 장에서는 연구모형을 검증하기 위한 실증분석을 수행하는데, 측정변수들에 대한 신뢰성과 타당성분석, 변수들의 인과관계를 분석하기 위해 경로분석을 실시하고, 제 V 장은 본 연구의 결론으로서, 본 연구의 실증모형에 대한 분석 결과에 대한 요약과 함께 본 연구의 시사점 및 연구한계, 향후 연구방향 등으로 진행하고 자 한다.

II. 이론적 배경

2.1 성격5요인에 관한 연구

원래 성격이라는 용어는 고대그리스어인 “persona”에서 유래가 되었다. persona는 연극 배우가 무대에서 자신의 얼굴을 대신할 마스크를 지칭하는 용어이었으나 현대사회에서는 개인을 나타내는 독특한 특징을 지칭하게 되었다. 이러한 성격에 대한 정의는 수많은 연구자들에 의해 다양한 형태로 정의가 되어져 왔는데, Eysenck(1947)은 성격을 주어진 환경 혹은 유전 등 선천적으로 타고 나타나는 행동의 특징이라고 정의를 하였고 행동적인 특징, 지능, 기질 및 체격의 4가지 요소로 구분된다고 하였다. Guilford(1959)는 성격을 재능, 기질, 특징, 흥미 등으로 구성되어져 있으며 이러한 구분은 타인과 구별이 되는 고유한 성격이라고 하였다.

한편 Pervin and John(1996)의 연구에서는 성격을 타인과 구별이 되는 행위라 하였는데 이러한 행위에 포함되어지는 예가 감정, 행동, 사고, 심리적 반응이라고 하였다. 이렇게 수많은 학자들에 의해 성격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졌는데,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성격 이론 중 가장 대표적인 이론인 Costa and McCrae(1992)의 성격5요인(The Five - Factor Model)을 기준으로 연구를 진행하였다. 성격5요인에는 성격을 크게 5가지의 분류로 신경증(Neuroticism), 외향성(Extraversion), 개방성(Openness), 성실성(Conscientiousness), 친화성(agreeableness)로 구분을 하였는데 위 5가지 성격들에 대한 세부적인 특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신경증은 불안, 초조, 자기비판, 적대감, 부정적인 사고, 우울을 가진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결과는 신경증이 높을수록 불안, 초조, 부정적인 사고가 높아진다는 뜻으로 해석이 될 수가 있다. 외향성의 특징으로는 사회적인 활동을 적극적으로 하며, 상대에 대한 배려, 우호적인 태도, 남들과 어울리기를 좋아한다는 특징을 가진다. 성실성의 특징을 살펴보면 사회적인 규칙을 잘 준수하는 성격이며 일의 효율성을 중요시하며 높은 책임감과 자기통제를 잘하는 성격을 총칭한다. 또한, 목표지향적인 성격이 강한 유형으로 목표를 성취하기 위하여 계획, 지속적인 유지, 동기부여를 끊임없이 노력하는 특징을 보여준다. 개방성에 성격의 특징으로는 호기심이 많고 새로운 것에 흥미를 느끼는 특징을 가지는 성격을 말한다. 특히 개방성의 정도가 높아질수록 새로운 것에 대한 개방성이 높아진다는 특징을 나타낸다. 마지막 성격의 특성인 친화성은 융통성과 성격

이 매우 사교적이며 긍정적인 성격을 가지며, 신뢰성, 솔직성이 높은 특징을 보여주게 된다. 친화성이 높은 사람일수록 타인의 감정을 잘 이해하고 어려운 사람을 잘 도와주는 특징을 보여주게 되며 타인과 잘 어울리는 특징을 가지게 된다.

김정현(2005)는 성격 5요인이론은 성격 관련 연구 중 가장 작은 요인의 수를 가지고 있으며 가장 효율적으로 성격 구조를 설명할수 있는 가장 강력한 이론이라고 하였으며 Goldberg(1986)는 성격 5요인이 미주지역 뿐만 아니라 타 문화권, 타 인종에게도 동일한 형태의 성격구조를 나타내고 있다고 주장하였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IT분야 예비창업자의 성격특성이 자기효능감, 개인혁신성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기 위해 성격5요인 모델을 측정도구로 사용하는 것이 의미가 있는 것으로 판단하였다. 이러한 분석을 위해서 Coast and McCrae(1992)가 제시한 성격 5요인의 기본적인 개념을 차용하여 한국형으로 변환한 이태규(2008)을 사용하였다.

2.2 자기효능감에 관한 연구

자기효능감이라는 용어는 1977년 Bandura에 의해 처음 사용이 되어졌는데, Bandura(1977)은 자기효능감을 개인이 성공적인 성과를 도출하기 위해 가지는 신념 혹은 믿음이라 정의를 하였으며 Schunk(1989)는 자기효능감에 대해 개인이 성취하고자 하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인지적, 행위적, 사회적 기능을 종합적인 행태로 구조화하는 것이라 하였다. 또한 Vealey(1986)은 자기효능감에 대해 개인의 내적, 외적 능력을 활용하여 직면한 문제를 해결할수 있는 믿음이라고 하였다. 김정렬(2003)의 연구에서는 자기효능감을 지각된 능력과 믿음의 강도의 구체적인 수준이라고 하였으며, 김남성(1995)은 자기효능감을 감정적, 즉흥적, 일회성이라기보다는 중, 장기적인 관점에서 목표달성을 위해 문제를 인지, 분석,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라고 주장 하였다.

또한 Judge and Bono(2001)의 연구에서는 기업체 종업원을 대상으로 자신의 업무와 관련되어져 있는 능력과 문제해결 능력에 대한 자기효능감을 실증적인 결과 자기효능감이 높은 그룹일수록 더욱더 높은 성과물 및 업무에 대한 보람을 가지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었다.

자기효능감이 창업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해 연구한 Baum(1994)은 기술에 대한 능력, 성취감, 마케팅, 목표 달성을 위한 동기, 자기효능감 등을 독립변수로 설정하여 분

석을 실시한 결과 자기효능감이 창업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결과인 것을 입증하였으며, 예비창업자의 창업의지가 창업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한 Krueger and Brazeal (1984)의 연구에서는 자기효능감이 창업행동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밝혀내었으며 특히 자기효능감은 개인적인 신념, 사회적 신념 혹은 통념, 생리적 상태에 의해 영향을 받을 수 있다고 하였다.

위의 연구자들을 종합해보면 자기효능감은 자기효능감이 높을수록 어려운 상황에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의 정도가 강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었으며 자기효능감이 낮을수록 주어진 문제에 대해 쉽게 포기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었다.

2.3 개인혁신성에 관한 연구

개인혁신성 연구로 박기남(2012)은 개인혁신성을 사회구성원이 타인들 보다 먼저 혁신을 수용하려는 의도 혹은 행위라고 정의하고, 개인혁신성이 높은 사람일수록 새로운 기술이나 제품에 대해 호의적 의견을 보이며 개인혁신성이 낮은 사람일수록 새로운 기술, 제품에 대한 두려움과 부정적 생각을 가진다고 하였다. Midgley and Dowling(1978)은 개인혁신성을 새로운 자극에 대한 개방적 태도이며 개인적인 특성이라 하였으며, 개인혁신성이 높은 사람은 개인혁신성이 낮은 집단에 비해 유연한 사고와 태도를 보인다고 하였다. 또한 Roger(2003)는 혁신성이 높은 집단일수록 새로운 아이디어 수용, 문제에 대한 능동적인 해결능력, 위험에 대한 긍정적인 사고가 높다고 하였다. Frese et al.(1997)은 그의 연구에서 개인혁신성은 3가지로 구성되며 첫 번째가 사전행동성으로 새로운 기술을 사용함에 있어 그 기술을 장기적인 관점에서 보는 행동이라 하였다. 두 번째로는 자발적시도로 새로운 기술이나 기기를 활용하여 현재 업무에 적용하는 것을 말한다. 세 번째로는 장애의 감수로서 혁신적인 제품을 사용함에 있어서 생길 수 있는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능동적인 자세라고 하였다.

Hirschman(1980)은 개인혁신성의 중요성 연구를 하였는데, 그는 혁신성을 포함한 제품들이 없다면 소비자들은 제품들에 대해 무관심한 태도를 보여줄 것이라고 주장하였으며 기술의 확산을 계산하는데 가장 중요한 요인은 개인혁신성의 수용에 따라 예측을 할 수 있다고 하였다. Shin and Venkatesh(2000)는 개인혁신성에 따른 사용혁신성은 진보된 기술적인 제품에서 주로 나타나며 기술이 빠르게 보편화되면서 많은 소비자들을 가지게 되

며, 이러한 현상은 상품의 다양성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고 하였다.

2.4 창업의도에 관한 연구

창업은 새로운 비즈니스를 시작하는 하나의 행위라고 요약할 수가 있는데 Grant(1996)는 잠재적인 창업자가 미래에 창업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을 창업의도라고 정의하였다.

통상적으로 창업의도를 설명한 이론들은 Ajzen(1991)의 계획행동이론(TPB : Theory of Planned Behavior)의 이론에 근거하였는데 이는 기존의 합리적 행동이론(TRA : Theory of Reasoned Action)에 새로운 변수를 추가한 예측모형으로 창업의도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에 대해 연구를 하였으며 Shapero(1982)의 연구와 같이 창업을 하게 되어지는 이유를 외부적인 요인, 동기와 같이 외부적인 요인에서 찾는 연구도 활발하게 진행이 되었다.

창업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찾기 위해서 국내외에서 많은 연구자들에 의해 연구가 진행이 되었는데, Shapero(1982)는 창업자의 창업의도에 따라 기업의 조직문화, 기업의 특색, 목표 등이 정해지기 때문에 창업에 중요한 요인이라고 하였다. 대학생의 창업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환경에 관한 연구를 진행한 양준환(2015)의 연구에서는 창업자의 심리적인 특성 외에도 재무적인 상황, 개인의 경력, 정책적인 요소 등이 창업의도에 영향을 미친다고 주장 하였다. 박시사와 강성일(2007)의 연구에서는 개인의 특성이 창업의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연구를 진행하였는데 연구의 결과 개인의 특성요인은 창업자의 행동을 자극하는 심리적 요인 중 하나이며 이러한 요인은 창업의도를 더욱 높인다고 하였다. 또한, 타인에 비해 자기의 능력을 판단하는 기준인 자기효능감이 높은 사람일수록 창업의도가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창업과정에서 생겨날 수 있는 여러 가지 어려움 즉, 금전, 노사관계, 행정적문제, 비즈니스관계에 대해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다 능력이 높다는 말로 바꾸어 설명할 수 있다고 하였다.

창업환경과 창업의도를 연구한 윤방섭(2004)의 연구에서는 창업의도는 창업환경의 우호도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고 주장을 하였는데 다시 말해 창업환경이 창업자에게 우호적인 환경(재무적, 행정적, 시장상황)이면 창업의도는 높아진다고 하였으며 창업환경이 창업자에게 위협적인 환경을 조성할 경우 창업자의 개인적인 판단에 따라 창업의도는 달라지게 되어지는데 이러한 창업의도는 개인의 주관적인 신념, 자기효능감에 따라 달라질 수가 있다고 하였다.

〈표 1〉 선행연구자의 연구내용

연구이론	연구자	연구내용 및 정의
성격5 요인	Pervin & John (1996)	성격을 타인과 구별이 되는 행위
	Costa & McCrae (1992)	성격5요인(The Five - Factor Model)을 기준으로 연구를 진행
	김경현 (2005)	성격 관련 연구 중 가장 작은 요인의 수를 가지고 있으며 가장 효율적으로 성격 구조를 설명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이론
	Goldberg (1986)	성격 5요인이 미주지역 뿐만 아니라 타 문화권, 타 인종에게도 동일한 형태의 성격구조를 나타내고 있다고 주장
자기 효능감	Bandura (1977)	개인이 성공적인 성과를 도출하기 위해 가지는 신념 혹은 믿음이라 정의
	Schunk (1989)	개인이 성취하고자 하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인지적, 행위적, 사회적 기능을 종합적인 행태로 구조화
	김경렬 (2003)	자기효능감을 지각된 능력과 믿음의 강도의 구체적인 수준
	김남성 (1995)	자기효능감을 감정적, 즉흥적, 일회성이라기보다는 중, 장기적인 관점에서 목표달성을 위해 문제를 인지, 분석, 해결할 수 있는 능력
	Judge & Bono (2001)	기업체 종업원을 대상으로 자신의 업무와 관련되어져 있는 능력과 문제해결 능력
	Baum (1994)	자기효능감이 창업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결과인 것을 입증
	Krueger & Brazeal (1984)	자기효능감은 개인적인 신념, 사회적 신념 혹은 통념, 생리적 상태에 의해 영향
개인 혁신성	박기남 (2012)	사회구성원이 타인들 보다 먼저 혁신을 수용하려는 의도 혹은 행위
	Midgley & Dowling (1978)	개인혁신성을 새로운 자극에 대한 개방적인 태도
	Frese et al. (1997)	새로운 기술을 사용함에 있어 그 기술을 장기적인 관점에서 보는 행동
	Hirschman (1980)	기술의 확산을 계산하는데 가장 중요한 요인은 개인혁신성의 수용에 따라 예측
창업의도	Crant (1996)	잠재적인 창업자가 미래에 창업을 할 수 있는 가능성
	Shapero (1982)	창업자의 창업의도에 따라 기업의 조직문화, 기업의 특색, 목표 등이 정해지기 때문에 창업에 중요한 요인
	양준환 (2015)	업자의 심리적인 특성 외에도 재무적인 상황, 개인의 경력, 정책적인 요소 등이 창업의도에 영향을 미친다고 주장
	윤방섭 (2004)	창업의도는 창업환경의 우호도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고 주장

III. 연구 방법

3.1 연구모형 및 가설 수립

본 연구에서는 IT예비창업자의 성격5요인이 자기효능감과 개인혁신성에 미치는 영향 그리고 자기효능감과 개인혁신성이 창업의도에 미치는 영향력을 파악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연구모형을 설정하였다.

[그림 1] 연구모형

성격5요인의 이론은 성격 관련 연구 중 가장 효율적인 성격 구조를 설명한 이론이며(김경현, 2005) 가장 강력한 이론 중 하나라고 하였으며 Goldberg(1986) 역시 성격 5요인은 미주 지역뿐만 아니라 타 지역, 인종을 불문하고 동일한 형태의 성격구조 및 형태를 표출하고 있다고 하였다.

〈가설 1〉 IT예비창업자의 성격5요인은 자기효능감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2〉 IT예비창업자의 성격5요인은 자기혁신성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자기효능감이 개인혁신성에 대한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김경결(2003)은 자기효능감이 개인혁신성에 유의미한 영향력을 미치며 이러한 결과를 통해 얻게 된 결과는 자기효능감이

지각된 능력과 믿음의 강도의 구체적인 수준이라고 하였으며 Judge and Bono(2001)의 연구에서는 기업체 종업원을 대상으로 자신의 업무와 관련된 능력 및 문제해결 능력에 대해 자기효능감을 실증분석한 결과 자기효능감이 높은 집단일수록 더욱더 높은 성과를 보여주었으며 업무에 대한 보람을 가지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었다라고 하였다. Midgley and Dowling(1978)의 연구에서는 개인혁신성이 창업의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연구를 하였는데 연구의 결과 개인혁신성이 높은 사람은 개인혁신성이 낮은 집단에 비해 유연한 사고와 태도를 보인다고 하였다. 또한, Roger(2003)는 혁신성이 높은 집단의 경우 새로운 아이디어 수용, 문제에 대한 능동적인 해결능력, 위험에 대한 긍정적인 사고가 높다고 하였다.

〈가설 3〉 IT예비창업자의 자기효능감과 개인혁신성은 창업의도에 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4〉 IT예비창업자의 성격5요인은 창업의도에 유의미한 간접효과를 미칠 것이다.

〈표 2〉 변수의 조작적정의

변 수		변수의 조작적 정의	선행연구자	문항수
응답자 특성	인구 통계적 특성	성별, 연령, 학력	—	3
	신경증	화를 잘 내며 자신감이 없고 불안한 태도를 가짐	Costa & McCrae(1992), 이태규(2008)	5
독립 변수	외향성	사교적, 활동적이며 적극적인 태도		5
	성실성	일의 효율성, 책임감이 강함		5
	개방성	호기심과 창의력이 높은 성격		5
	친화성	융통성과 성격이 사교적이며 긍정적인 성격		5
매개 변수	자기효능감	특정과업을 완료하기 위한 자기능력에 대한 믿음	Sherer & Adams(1983), 송윤아(2000)	4
	개인혁신성	다른 사람들보다 새로운 아이디어나 정보기술을 채택, 사용함에 있어 신속한 정도	Shin & Venkatesh(2000), 박기남(2012)	8
종속 변수	창업의도	창업을 하고 싶어 하는 희망, 의도	정대용, 박경임(2010), Crant(1996)	5

IV. 결과 분석

4.1 인구통계학적 특성 및 기술통계

본 연구에서 참여한 대상자들의 인구통계학적 특성을 살펴보면 결과 아래 <표 1>과 같다. 세부적인 분석의 결과를 살펴보면 남성은 170명, 64.9%로 나타났으며 여성은 92명, 35.1%로 나타나 남성이 여성에 비해 더 높은 설문 참여율을 보여주었으며 나이에 대한 설문에서는 20대가 26명, 9.9%, 30대가 148명, 56.5%, 40대가 88명, 33.6%로 나타나 30대의 응답비중이 가장 높은 것을 파악되었다. 또한, 학력에 대한 설문에서는 대학졸업이 176명, 67.2%로 가장 높았으며 석사 졸업이 54명, 20.6%, 박사졸업이 27명, 10.3%, 고졸 이하가 5명, 1.9%의 순서로 파악되었다.

<표 3> 표본의 인구통계학적 특성

구 분		빈 도	유효 퍼센트	누적퍼센트
성별	남성	170	64.9	64.9
	여성	92	35.1	100.0
나이	20대	26	9.9	9.9
	30대	148	56.5	66.4
	40대	88	33.6	100.0
학력	고졸이하	5	1.9	1.9
	대학졸업	176	67.2	69.1
	석사졸업	54	20.6	89.7
	박사졸업	27	10.3	100.0

본 연구에서 사용된 측정도구들에 대한 기술통계분석을 실시한 결과 <표 4>와 같다. 왜도(skewness)는 자료의 분포모양이 어느 쪽으로 얼마만큼 기울어져 있는가를 나타내며 일반적으로 왜도의 절대값이 1보다 큰 경우에는 정규분포에서 크게 벗어난 것으로 간주한다(성도경 외, 2011). 첨도(kurtosis)는 자료의 분포모양이 위로 뽕족한 정도를 나타내는 것으로 첨도의 절대값이 7보다 작아야 정상분포를 이룬다고 볼 수 있다. 이를 기준으로 본 연구에서 사용된 측정도구들은 정규분포를 가진다고 해석할 수가 있다.

<표 4> 기술통계분석

설 문	설문내용	M	SD	왜도	첨도
외향성1	나는 사교적이고 남에게 친근함을 준다.	3.64	.850	-.323	-.277
외향성2	나는 생기있고 활동적인 편이다.	3.15	.995	-.013	-.376
외향성3	나는 명랑하며 낙천적이다.	3.40	1.088	-.085	-.878
외향성4	나는 모든 일에 적극적이다.	3.54	.895	-.386	.059
외향성5	나는 다른 사람과 어울리기를 좋아한다.	3.40	1.023	-.162	-.610
친화성1	나는 다른 사람을 신뢰한다.	3.38	.917	.050	-.706
친화성2	나는 너그러운 편이다.	2.71	.860	-.058	-.233
친화성3	나는 융통성이 있다.	3.20	.995	-.274	-.546
친화성4	나는 포용성이 있는 편이다.	3.34	.948	.262	-.701
친화성5	나는 매사에 긍정적이다.	3.49	.974	-.181	-.779
성실성1	나는 효율적으로 일처리를 한다.	2.81	.802	-.053	-.038
성실성2	나는 책임감이 있다.	2.86	.875	.210	.241
성실성3	나는 체계적으로 일할 능력을 가지고 있다.	2.69	.893	.236	-.034
성실성4	나는 매사에 철저하다.	2.89	.875	.252	-.441
성실성5	나는 계획적으로 일을 수행한다.	2.85	.810	.104	-.459
신경증1	나는 사소한일에 화를 잘 낸다.	3.11	.959	-.039	-.465
신경증2	나는 매사에 두려워하는 편이다.	2.85	1.151	.120	-.739
신경증3	나는 쉽게 당황하고 자각지심이 강하다.	2.72	.977	.120	-.238
신경증4	나는 쉽게 우울해지는 편이다.	2.93	1.088	-.061	-.761
신경증5	나는 뭔지 모르게 항상 걱정이 많다.	3.08	1.096	-.125	-.541
개방성1	나는 다양한 경험을 추구한다.	3.17	.796	-.134	-.575
개방성2	나는 호기심이 많은 편이다.	3.04	.825	-.649	.409
개방성3	나는 모험을 좋아한다.	3.08	.810	-.278	.447
개방성4	나는 상상력이 풍부한 편이다.	3.15	.826	-.044	.770
개방성5	나는 창의성이 있는 편이다.	3.14	.790	-.109	.592
개인혁신성1	내 스스로 설정한 목표들은 대체로 잘 달성할 수 있다.	3.50	.870	-.329	.000
개인혁신성2	어려운 과제를 만났을 때 그것을 달성할 수 있다고 확신한다.	3.53	.950	-.199	-.194
개인혁신성3	일반적으로 난 나에게 중요한 일이라면 성과를 이뤄낼 수 있다.	3.58	.947	-.399	-.322

〈표 4〉 기술통계분석 (계속)

설 문	설문내용	M	SD	왜도	첨도
개인혁신성4	나는 내가 마음속으로 작정한 만큼의 노력을 성공적으로 해낼 수 있다고 믿는다.	3.56	1.015	-.401	-.393
개인혁신성5	나는 많은 도전들을 성공적으로 극복할 수 있다.	3.53	.973	-.487	-.073
개인혁신성6	나는 다양한 각 임무들을 효율적으로 달성할 수 있다.	3.66	1.000	-.460	-.280
개인혁신성7	나는 대부분의 임무들을 다른 사람들에 비해 잘 달성할 수 있다.	3.62	1.013	-.593	-.046
개인혁신성8	나는 힘들 일도 꽤 잘 수행해 낼 수 있다.	3.57	.994	-.332	-.478
자기효능감1	나는 내 능력으로 내가 맡은 모든 업무를 처리할 수 있다.	2.98	1.202	.064	-.880
자기효능감2	앞으로도 나의 기술과 능력이 타인들에 비해 뒤지지 않을 것이다.	2.99	1.178	-.028	-.806
자기효능감3	이전의 경험으로 볼 때 나는 나의 업무를 훌륭히 해낼 자신이 있다.	3.24	1.244	-.164	-.977
자기효능감4	나는 계획을 세울 때면 나는 그것을 이룰 수 있다고 확신한다.	3.14	1.218	-.163	-.842
창업의도1	나는 창업 경력을 선택할 것이다.	2.81	.937	-.391	-.583
창업의도2	나는 5년 안에 창업할 의사가 있다.	2.72	.920	-.509	-.115
창업의도3	나는 취업보다는 창업을 선호한다.	2.69	1.020	-.385	.183
창업의도4	나는 언젠가는 창업을 시작할 것이다.	2.97	.940	-.768	.291
창업의도5	나는 창업을 하겠다는 의지가 크다.	2.95	.902	-.628	1.124

4.2 타당성 분석

본 연구에서 사용된 측정도구에 대한 타당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탐색적 요인분석을 실시한 결과 아래와 같다. 먼저 본 연구에서 독립변수인 성격5요인에 대한 탐색적 요인분석의 결과를 살펴보면 본 연구의 모형의 독립변수의 특성요인인 신경증, 외향성, 개방성, 성실성, 친화성에 대한 요인분석 결과 5개로 〈표 5〉와 같이 추출되었다. 이 표에 의하면, 아이젠 값은 2.465에서 3.219로 모두가 1.0을 상회하는 것으로 나타나 모든 독립변수들이 명확히 분류되었다. 누적분산은 62.300%로 나타났고, 요인적재치가 0.4보다 크게 나타나 동일 요인의 측정변수간의 집중 타당성과 판별 타당성이 모두 검증되었다. 또한, KMO의 수치는 .760, Bartlett의 구형성검증에서는 카이제곱값이 2795.776(df=276, p=.000)으로 파악되었다.

〈표 5〉 성격5요인에 따른 탐색적 요인분석 결과

설문항목	성 분				
	1	2	3	4	5
신경증2	.859				
신경증5	.845				
신경증1	.772				
신경증4	.718				
신경증3	.680				
외향성5		.810			
외향성2		.772			
외향성1		.768			
외향성4		.759			
외향성3		.738			
개방성2			.855		
개방성3			.759		
개방성1			.755		
개방성4			.715		
개방성5			.691		
성실성5				.808	
성실성2				.795	
성실성1				.734	
성실성4				.719	
성실성3				.673	
친화성5					.781
친화성4					.757
친화성1					.710
친화성3					.643
Eigen - value	3,219	3,204	3,048	3,016	2,465
설명분산(%)	13,413	13,350	12,700	12,565	10,272
누적분산(%)	13,413	26,763	39,463	52,028	62,300
Cronbach Alpha	.853	.846	.822	.827	.747

또한 신뢰도 분석의 결과가 기준치인 0.6이상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Nunnally(1978)가 탐색적인 연구 분야에서는 알파값이 0.60이상이면 충분하고, 기초연구 분야에서는 0.80, 그리고 중요한 결정이 요구되는 응용연구 분야에서는 0.90 이상이어야 한다고 주장을 충족시키는 결과이며 Van 등 (1980)도 조직단위의 분석수준에서 일반적으로 요구되어지는 알파값은 0.60이상이면 측정도구의 신뢰성에는 별 문제가 없는 것으로 일반화 하고 있다는 기준 역시 충족시키는 결과이다.

본 연구의 매개변수 및 종속변수에 대한 요인분석 결과는 <표 6>과 같다.

<표 6> 자기효능감, 개인혁신성, 창업의도에 대한 탐색적요인분석 결과

설문항목	성 분		
	1	2	3
개인혁신성4	.788		
개인혁신성5	.762		
개인혁신성3	.754		
개인혁신성7	.748		
개인혁신성8	.722		
개인혁신성6	.715		
개인혁신성1	.690		
개인혁신성2	.681		
자기효능감4		.835	
자기효능감2		.793	
자기효능감3		.773	
자기효능감1		.743	
창업의도5			.762
창업의도4			.705
창업의도2			.656
창업의도1			.599
창업의도3			.584
Eigen - value	4.515	2.915	2.709
설명분산(%)	26.557	17.148	15.938
누적분산(%)	26.557	43.705	59.643
Cronbrach Alpha	.893	.837	.772

이 표에 의하면 매개 및 종속 변수들의 탐색적 요인분석 결과로서 개인혁신성, 자기효능감, 창업의도로 모두 3개의 요인으로 추출되었다. 추출된 결과와 같이 아이겐 값은 2.709에서 4.515로 모두가 1.0을 상회하고 있으며, 모든 독립변수들이 명확히 분류되었고, 누적 분산은 59.643%로 나타났고, 요인적재치가 모두 0.4보다 크게 나타났다. 그리하여 동일요인내의 측정변수간의 집중 타당성과 판별 타당성이 모두 검증되었다. KMO의 수치는 .837, Bartlett의 구형성검증에서는 카이제곱값이 2164.177(df=136, p=.000)으로 파악되었으며 3개의 요인 모두의 Cronbach Alpha값이 0.6이상으로 나와 측정도구에 문제가 없음을 나타내고 있다.

본 연구에서 선정된 변수들의 판별타당도를 파악하기 위하여 판별타당도 분석을 시행하였다. 판별타당도 검증의 결과 판별타당도는 평균분산추출(AVE, Average Variance Extracted)과 개념들 간 상관계수 값을 이용하여 분석할 수 있다. 구성개념들 간의 상관계수의 제곱값이 평균분산추출량(AVE)을 초과하지 않으면 판별타당성을 지닌다(Fornell and Laker, 1981). 분석의 결과 AVE값은 기준치인 0.5를 모두 초과하고 있으며 개념신뢰도 역시 기준치인 0.7이상으로 나타나 본 연구의 측정도구에 대한 판별타당성은 확보되었다.

〈표 7〉 요인들에 대한 상관관계, AVE, 개념신뢰도

요인명	평균	표준 편차	신경증	외향성	개방성	성실성	친화성	개인 혁신성	자기 효능감	창업 의도
신경증	2.9374	.83802	1							
외향성	3.4267	.76637	-.123*	1						
개방성	3.1160	.61871	-.124*	.160**	1					
성실성	2.8198	.65454	-.344**	-.043	.036	1				
친화성	3.3511	.72303	.063	.341**	.002	-.248**	1			
개인혁신성	3.5692	.73381	-.417**	.038	.366**	.240**	-.047	1		
자기효능감	3.0878	.99227	-.339**	.400**	.150*	.074	.241**	.127*	1	
창업의도	2.8267	.68305	-.549**	.330**	.291**	.348**	.134*	.476**	.424**	1
AVE			.549	.586	.716	.610	.508	.603	.511	.502
개념신뢰도			.828	.850	.883	.861	.756	.856	.771	.744

** p<0.01, * p<0.05

4.3 가설의 검정

본 연구에서 선정한 가설을 검정하기 위하여 구조방정식(SEM)의 경로분석을 실시하여 분석을 실시한 결과 아래와 같다. 세부적인 분석의 결과를 살펴보면 신경증은 개인혁신성과 자기효능감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부적(-) 영향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외향성은 자기효능감에 유의미한 정적(+) 영향력을 주었다. 또한, 개방성은 개인혁신성에, 성실성은 개인혁신성에 친화성은 자기효능감에 유의미한 정적(+) 영향력을 미쳤으며 개인혁신성과 자기효능감은 창업의도에 정적(+) 영향력을 미쳤다. 본 분석의 결과 신경증이 개인혁신성에 가장 큰 영향력을 주는 것을 알 수가 있었으며 다음으로는 개방성으로 파악되었다. 또한, 자기효능감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요인 신경증으로 나타났으며 다음으로는 외향성으로 파악되었다. 개인혁신성과 자기효능감이 창업의도에 미치는 영향에서는 자기효능감이 개인혁신성보다 더 큰 영향력을 창업의도에 미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다.

〈표 8〉 가설의 검정

가 설		Estimate	S.E.	C.R.	P	채택여부	
개인혁신성	← 신경증	.243	.050	-4.826	***	채택	H2
자기효능감	← 신경증	.346	.068	-5.090	***	채택	H1
개인혁신성	← 외향성	-.080	.060	-1.342	.180	기각	H2
자기효능감	← 외향성	.402	.089	4.524	***	채택	H1
개인혁신성	← 개방성	.252	.061	4.156	***	채택	H2
자기효능감	← 개방성	.075	.078	.963	.335	기각	H1
개인혁신성	← 성실성	.252	.072	3.475	***	채택	H2
자기효능감	← 성실성	.129	.096	1.347	.178	기각	H1
개인혁신성	← 친화성	.090	.075	1.207	.228	기각	H2
자기효능감	← 친화성	.271	.107	2.538	.011*	채택	H1
창업의도	← 개인혁신성	.485	.086	5.619	***	채택	H3
창업의도	← 자기효능감	.421	.065	6.471	***	채택	H3

*** $p < 0.001$, ** $p < 0.01$, * $p < 0.05$

〈표 9〉 연구모형 적합도 지수

적합도지수	평가기준	모형적합도 결과
자유도(df)	모수가 추정된 다음의 이용 가능한 정보 단위수	350
카이자승통계량	—	705.986
유의 확률(p값)	—	.000
적합도 지수(GFI)	>0.9 우수, >0.8 양호	.851
조정 적합도 지수(AGFI)	>0.8 우수, >0.7 양호	.815
원소간 평균차이(RMR)	최소값	.061
표준적합지수(NFI)	>0.9 우수, >0.8 양호	.818
Tucker – Lweis 지수(TLI)	>0.9 우수, >0.8 양호	.881
비교부합지수(CFI)	>0.9 우수, >0.8 양호	.897
충분적합지수(IFI)	1에 가까울수록 양호	.899
간명기초부합지수(Parsimonius CFI)	>0.7 우수, >0.6 양호	.774
간명표준부합지수(Parsimonius NFI)	>0.7 우수, >0.6 양호	.705
근사평균오차제곱근(RMSEA)	<0.1 채택, <0.05 최적	.062

본 연구의 독립변수인 신경증, 외향성, 개방성, 성실성, 친화성이 종속변수인 창업의도에 미치는 영향력을 파악하기 위하여 부트스트래핑을 이용한 간접효과(indirect)분석 결과 모든 요인들이 창업의도에 미치는 간접효과가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이중 가장 큰 영향력을 주는 변수는 신경증으로 나타났으며 다음으로는 친화성, 성실성, 개방성, 외향성으로 파악되었다.

〈표 10〉 부트스트래핑을 이용한 간접효과(indirect)분석 결과(가설4)

종속변수 (창업의도)	신경증	외향성	개방성	성실성	친화성
계수값	-.366	.159	.164	.170	.161
p	.008*	.040*	.009**	.006**	.004**

** p<0.01, * p<0.05

V. 결 론

IT분야 창업은 창업분야 중 가장 전문적인 지식을 필요로 하는 창업분야중 하나이다. 이러한 IT분야 창업은 지식을 습득하고 기술을 연마하여 시장에 진출하는 과정이 타 업종의 창업보다 소요되어지는 시간, 비용이 더 크며 위험부담 역시 높은 편이다. 이러한 중요성에 불구하고 대부분의 선행연구는 외식창업에 관한 연구를 진행한 것이 대부분이며 IT분야 예비창업자에 대한 실질적인 연구는 아주 미비한 수준에 머물러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선행연구들에 대한 문헌적 고찰을 통해 성격5요인에 대한 기존 연구의 흐름을 파악하였으며 자기효능감과 개인혁신성에 미치는 영향력을 파악하였으며 개인혁신성과 자기효능감이 창업의도에 미치는 영향력을 파악하였다. 본 연구 모형에서 도출된 가설을 기반으로 연구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신경증은 개인혁신성과 자기효능감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부정(-) 영향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IT분야에서 신경증적인 요소는 개인혁신성과 자기효능감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이해를 할 수가 있을 것이다. 이러한 결과를 토대로 IT분야 예비창업자들에 대한 성격요인을 파악하여 신경증을 가진 예비창업자들에게는 타 업종으로의 창업고려, 성격을 변화시킬 수 있는 체계적인 교육과 지원이 필요할 것이다.

둘째, 외향성은 자기효능감에만 유의미한 정적(+) 영향력을 주었다. 이러한 결과는 외향적인 성격이 높은 IT예비창업자일수록 자기효능감이 높다는 뜻으로 해석이 된다.

셋째, 개방성은 개인혁신성에만 영향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런 결과는 개방성이 높은 예비창업자일수록 개인혁신성이 높아지는 뜻으로 해석이 될 수가 있다. 개인혁신성은 선행연구에서도 언급을 하였지만 타인보다 새로운 기술에 대한 수용정도를 나타내는 용어로 개방적인 성격의 예비창업자일수록 새로운 기술에 대한 수용이 높아진다는 것으로 이해를 할 수가 있다.

넷째, 성실성은 개인혁신성에 정적인 영향력을 미쳤으며 자기효능감에는 영향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다시 말해 성실성이 높은 IT분야 예비창업자는 개인혁신성이 높아지는 것으로 이해할 수가 있을 것이다.

다섯째, 친화성은 자기효능감에 유의미한 정적(+) 영향력을 미쳤는데 예비창업자의 친화성이 자기효능감을 높여준다는 뜻으로 판단된다.

여섯째, 개인혁신성과 자기효능감은 창업의도에 정적(+) 영향력을 미쳤는데 이중 자기

효능감이 창업의도에 더 큰 영향력을 주었다. 다시 말해 IT분야 창업자에게는 개인혁신성과 자기효능감 모두 중요한 요소이나 이중 자기효능감이 창업의도에 더 필요한 요인으로 판단된다.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IT분야 창업 준비 중인 예비창업자들에게 개인혁신성보다는 자기효능감을 더 강조하여 교육 및 훈련을 해야 성공적인 창업이 이루어질 것이라 판단된다. 이러한 결과를 토대로 향후 IT창업을 지원하는 정부기관 및 교육기관은 창업자의 특성을 잘 파악하여 효과적인 가이드라인을 제작하여 성공적인 창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을 해야 할 것이다.

본 연구의 한계점으로는 첫째, IT분야 예비창업자의 성격5요인을 선행요인들을 이용하여 정량적인 항목들을 주로 이용하였는데, 향후 이를 보완함으로써 정성적인 항목과 정량적인 항목을 동시에 활용하는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또한 IT분야 예비창업자들의 성별, 학력, 지역 등에 따른 창업의도 영향력의 검증도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연구의 실증분석을 위한 표본을 선정할 때에 A지역 창업센터에 교육을 받고 있는 교육생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하였는데 향후에는 연구 범위를 넓혀 실증 연구를 수행할 필요성이 있을 것이며, 더 큰 관점에서 거시적인 표본 선정과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참고문헌

〈국내문헌〉

- 김경열(2003), “청소년의 스포츠 참여가 자기효능감 및 정신건강의 관계”, **용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김경현(2005), “인성과 음악선호도 : 성격의 Big5와 감각추구성형과 클래식 음악 선호도와 의 상관관계 연구”,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김남성(1995), **인지적 행동수정**, 교육과학사 : 서울.
- 김민철, 황정욱, 김근형(2004), “창업보육센터 활성화 요인 연구”, **전산회계연구**, 3(1) : 155-171.
- 김세영(2015), “m-러닝 사용자의 학업적 자기효능감과 지각된 유희성이 학습전이성장에 미치는 영향”, **전산회계연구**, 13(2) : 23-47.
- 박기남(2012),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수용요인 : 지각된 위험요인과 Two sided 네트워크 효과를 중심으로”, **인터넷전자상거래연구**, 12(3) : 207-235.
- 박시사, 강성일(2007), “개인특성과 창업의지의 관계에 관한 연구 : 여행업종사자를 중심으로”, **관광학연구**, 31(2) : 187-204.
- 성도경, 이환범, 이수창, 장철영, 최인규(2011), **Spss 알기 쉬운 통계기법의 활용**, 대명.
- 송윤아(2000), “일반적 자기효능감 척도개발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양준환(2015), “한국 대학생들의 창업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환경요인에 관한 연구”, **경영교육연구**, 30(1) : 25-45.
- 윤방섭(2004), “창업의지의 결정요인 : 개인특성 및 환경요인”, **산학경영연구**, 17(2) : 89-110.
- 이태규(2008), “외식창업자의 성격특성이 고객지향성, 직무만족 및 고객성장에 미치는 영향”, **한국호텔외식경영학회 학술발표논문집** : 119-137.
- 정대용, 박경임(2010), “사회적 네트워크가 창업의도를 매개로 창업에 미치는 영향”,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 11(12) : 4780-4786.

〈외국문헌〉

- Baum, R.(1994), *The Relation of Traits, Competencies, Vision, Motivation and Strategy to Venture Growth*, University of Maryland, College Park.
- Roger, E. M.(2003), *Diffusion of Innovation*, 4th ed. New York : Free Press.
- Ajzen, I.(1991), “The Theory of Planned Behavior”, *Organizational Behavior and Human Decision Process*, 50(2) : 179-211.
- Bandura, A.(1977), “Self-Efficacy : Toward a Unifying Theory of Behavioral Change”,

- Psychological Review*, 84(2) : 191–215.
- Costa, P. and McCraw, R. R.(1992), *In Revised NEO Personality Inventory and NEO Five Factor Inventory Professional Manual*, Odessa, FL : Psychological Assessment Resources.
- Grant, M. J(1996), “The Proactive Personality Scale as a Predictor of Entrepreneurial Intentions”, *Journal of Small Business Management*, 34(1) : 42–49.
- Eysenck, I. J.(1947), *Dimensions of Personality*, London : Routledge and Keganl Paul.
- Fornell, C. and Laker, D. F.(1981), “Evaluating Structural Equations Models with Unobservable Variables and Measurement Error”, *Journal of Marketing Research*, 18(1) : 39–50.
- Frese, M. F., Hilburger, T. and Leng, K.(1997), “The Concept of Personal Initiative : Organizational, Reliability in two German Samples”, *Journal of Organizational and Occupational Psychology*, 70 : 139–161.
- Goldberg, L. R.(1986), “An Alternative ‘Description of Personality’ : The Big–Five Factor Structure”,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4 : 26–42.
- Guilford, J. P.(1959), *Personality*, New York : McGraw–Hill.
- Hirschman, E. C.(1980), “Innovativeness, Novelty Seeking, and Consumer Creativity”, *Journal of Consumer Research*, 7(3) : 283–295.
- Judge, T. and Bono, J.(2001), “Relationship of Core Self–Evaluation Trait, Self–Esteem, Generalized Self–Efficacy, Locus of Control and Emotional Stability with Job Satisfaction and Job Performance : A Meta–analysis,” *Journal of Applied Psychology*, 86(1) : 80–92.
- Krueger, N. F. and Brazeal, D. V.(1984), “Entrepreneurial Potential and Potential Entrepreneurs. Entrepreneurship”, *Theory and Practice*, 18(3) : 91–101.
- Midgley, A. and Dowling, D. A.(1978), “Innovation : The Concept and Its Measurement”, *Journal of Consumer Research*, 4(1) : 229–241.
- Nunnally, J. C.(1978), *Psychometric Theory* (2nd ed.), New York : McGraw Hill.
- Pervin, L. A. and John, O. P.(1996), *Personality : The Theory & Research*, New York : John Wiley & Sons.
- Schunk, D. H.(1989), “Self–efficacy and Achievement Behaviors,” *Educational Psychology Review*, 1 : 173–208.
- Shapero, A.(1982), “Tho Social Dimension of Entrepreneurship”, *Encyclopedia of Entrepreneurship* : 72–90.

- Shin, C. and Venkatesh, A.(2004), "Beyond Adoption : Development and Application of a Use - Diffusion Model", *Journal of Marketing*, 68(1) : 59-72.
- Van, D. V. and Ferry, J.(1980), *Measuring and Assessing Organizations*, New York : Wiley.
- Vealey, R, S.(1986), "Conceptualization of Sport - Confidence and Competitive Orientation : Preliminary Investigation and Instrument Development", *Journal of Sport and Exercise Psychology*, 8(3) : 221-246.
- Venkatesh, V.(2000), "Determinants of Perceived Ease of Use : Integrating Control Intrinsic Motivation and Emotion into the Technology Acceptance Model", *Journal of Information System Research*, 11(4) : 342-365.

“본 논문은 학회윤리규정을 준수하였으며 논문에 대한 판권을 학회에 위임합니다.”

〈Abstract〉

The Effects of Potential IT Entrepreneurs' 5 Personality Factors on Personal Innovation, Self - Efficiency and Entrepreneurial Intentions

Sin, Ha - Sung*

Previous studies on potential IT entrepreneurs are almost nil unlike the importance of IT field. Hence, the present study aimed at isolating the personality factors of IT entrepreneurs using 5 personality factors in academic aspects, and on top of that, identifying the effects of potential IT entrepreneurs' personality factors on self - efficiency, personal innovation, and entrepreneurial intentions. The results of the analysis are follows : A nervous disease had a statistically significant negative(-) effect on personal innovation and self - efficiency, and extroversion had a significant positive(+) effect on self - efficiency. Also, openness had a significant positive(+) effect on personal innovation, sincerity on personal innovation, affinity on self - efficiency, while personal innovation and self - efficiency had a positive(+) effect on entrepreneurial intentions. The results showed that nervous diseases affect personal innovation the most, followed by openness. Nervous diseases also affect self - efficiency the most, followed by openness. As for the effect of personal innovation and self - efficiency on entrepreneurial intention, it was identified that self - efficiency affects personal innovation more than personal innovation. It is suggested that the study results will be used as useful materials in providing customized education for potential IT entrepreneurs based on the analysis of their personalities in the future.

Key words : 5 personality factors, Personal innovation, Self - efficiency, Entrepreneurial intention

* Ph.D. Department of Finance, Kyungil University, e - mail : bbang7600@hanmail.net